

2013년 5월 12일

지원이의 하루 ☺

오늘은 일요일! 학교는 안 갔지만 아침부터 학원을 갔다.

9시까지 중계동으로 가야했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서 5분 정도 늦었다.

논술 수업은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데, 오늘은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가?'였다. 수업이 끝나고 논술 문제를 푸는데 평소보다 어려워서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다.

학원이 끝나고 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스승의 날 선물을 사고 집으로 왔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파전을 점심으로 만들어 주셨다. 간장에 청양고추를 넣으셨다는데, 매콤해서 맛있긴 했지만 먹다보니 너무 매워서 많이 못먹었다.

밥을 먹고 집 앞 독서실에 갔는데, 공부는 많이 못했고 친구 아이패드로 인터넷을 하다 심슨을 봤다. 계속 놀다가 저녁먹으러 집에 갈 때 자괴감이 들었다. 그래도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준이, 준수, 후, 지아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런닝맨'을 보며 먹은 저녁은 삼겹살!!! 오랫동안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다!

사실 김치의 힘이 크다. 고기는 맛있는 김치랑 먹어야 술술 잘 들어간다.

급하게 수락학원에 가서 열시까지 잘 버텼다!

집에 오니 개그콘서트를 보고 있길래 과일을 먹으며 같이 봤다. 김기리와 김지민의

오늘 연기는 정말 최고인 것 같다!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다!

